

제주도를 방문한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여행특성 규명

강미희^{1*} · 박찬우² · 이영주³ · 김성일³

¹(주)그린리서치, ²국립산림과학원, ³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Touris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with Mass Tourists in Jeju Island

Mihee Kang^{1*}, Chanwoo Park², Yeongjoo Lee³ and Seongil Kim³

¹Green Research Inc., Seoul 135-280, Korea

²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³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요약: 이 연구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으로 구분하고, 친환경여행에 대한 태도와 생태관광 관련 인식, 그리고 기타 여행특성을 이용하여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태관광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험림에 대한 제주관광객의 인지도와 시험림 방문의도를 조사하여 제주시험림이 대안관광의 한 대상지로 이용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안관광객은 대중관광객에 비해 보다 자연과 문화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생태관광 인지도와 참여의도가 높고, 제주시험림으로의 생태관광 참여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관광객은 보다 능동적이며, 자연친화적인 활동 참여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으며, 스스로를 문화 및 자연 지향적인 관광객으로 평가하였다.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 개발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제주 대안관광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First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tourists by comparing socioeconomic and travel characteristics, ecotourism cognition level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tourism, and eco-friendly travel attitudes between alternative tourists and mass tourists visiting Jeju Island. Secondly, it aim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the Jeju experimental forests managed by Warm Temperate Forest Center as an alternative tourism destination. The results shown that alternative tourists had more positive travel attitude and higher level of cognition of ecotourism and intention of participate in ecotourism than mass tourist. The cognition level and the intention of visit the experimental forests were also higher in alternative tourists group. In addition, alternative tourists were more active and participatory in nature-oriented activities, and evaluated themselves culture and nature oriented tourists. Thus, it is required to keep monitoring the alternative touris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o reflect those in developing and managing alternative tourism destinations.

Key words : alternative tourism, ecotourism, travel attitude, Jeju

서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리우선언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패러다임을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시켰으며, 관광 부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

을 촉발하였다.

1996년 세계여행관광위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와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그리고 지구협의회(Earth Council) 등의 3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하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행과 관광 산업에 대한 의제 21(Agenda 21 for the Travel & Tourism Industry)'을 공동으로 채택하였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광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관광이 야기한 사회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heekang@gmail.com

이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2005년도 연구사업 일반과제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체계 수립'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

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각하고 비판하면서(Ross, 1992) 이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기존의 혼잡하고 일률적인 관광경험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원시환경에서 모험을 즐기고 정신적인 재충전 기회를 가지며 보다 의미 있고 교육적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Theophile, 1995)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많은 관광형태들을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라 부른다. 생태관광(eco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등과 같이 여행 대상지나 활동, 동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관광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모두 대안관광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초에 자연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형태는 여행시장의 10~30%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99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연지역 여행객이 매년 10~2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EP, 2000). 정확한 통계치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가능한 관광의 최적 대안으로 평가받는 생태관광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WTO(2001)는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 비율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 더 큰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대안관광 출현의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대안관광의 등장은 환경문제와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관광객의 선호가 다양해지고 변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대안관광의 도입을 선호하고 또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또 새롭게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운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관광시장의 지속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도 생태관광을 비롯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관광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역시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을 꾀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제주도는 제주도가 가진 자연과 문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시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생태관광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신동일, 2001)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귀포시 예래동과 같은 일부 지역의 성공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협림과 한남시협림은 2006년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 시험림 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한 부분으로 생태관광을 도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환경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의 한 형태로 생태관광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새롭게 도입될 생태관광 등의 대안적 관광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특성을 관광객 스스로가 평가한 관광객유형을 통해 구분하고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이 가지는 차별적인 특성을 친환경여행에 대한 태도와 생태관광 관련 인식, 그리고 기타 여행 특성을 이용하여 규명함으로써 제주관광시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험림에 대한 인지도와 생태관광 개발시 제주시험림 참여의도를 조사하여 시험림이 대안관광의 한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안관광의 개념과 특성

대안관광의 역사는 2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Eadington and Smith, 1992).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대안관광은 대중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지각하고 비판이 강해지기 시작하던 1970년대 정도부터 대두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주민 참여와 소규모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나타났다(Pearce, 1992).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은 대안관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tourism for discovery project" 또는 "integrated rural tourism"으로 표현되는 세네갈(Senegal)의 카자만스(Casamance) 지역 사례이다(Bilsen, 1987). 이런 움직임 외에도 초기에는 대안관광을 정의하고 관련된 이슈 규명을 위한 연구(Cohen, 1987)가 수행되고 워크숍(Britton and Clarke, 1987)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안관광은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국가 혹은 지역적 배경과 개인 혹은 단체의 다양한 관심 하에서 대안관광이 언급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의되거나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명확한 정의는 찾기 어렵다(Pearce, 1992).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안관광은 자연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주인(관광대상지 지역사회)과 손님(관광객) 모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상호작용을 즐기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Edgington and Smith, 1992). Deroi (1988, p.89)는 “대안관광과 지역사회기반관광(Community Based Tourism, CBT)은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확대 서비스(그리고 특성)이다. 이들 관광의 최우선 목적은 주인과 손님간의 직접적인 개인간/문화적 상호의사소통과 이해를 확립하는 것”으로 대안관광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개발방식에 있어서 대안적인 개발접근법을 시도한 경우를 일컫기도 하며, “새로운 유형의 관광”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만 이용되기도 한다(Lanfant and Grabum, 1992).

그러나 다른 모든 형태의 관광에 대한 대안은 분명 아니다. 가장 최소의 수준에서 바람직한 또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의 관광에 대한 대안을 의미한다(Butler, 1992).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주류관광인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이며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덜 야기하는 관광을 말한다(Middleton and Hawkins, 1998).

대안관광객의 특성은 대안관광의 형태로 등장한 관광 유형, 예컨대 생태관광이나 녹색관광, 문화관광, 연성관광 등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특성 조사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대안관광객은 자연지역이나 자연현상을 감상하기 위하여 비소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Wall, 1994)이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견지에서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계몽된 여행자(Jenner and Smith, 1992)이다. 또 이들은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더 능동적으로 여행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다(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3). 또 이들은 관광지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고 존중하며, 환경친화적인 여행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등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여행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강미희 등, 2003).

한편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도,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중산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Eagles and Cascagnette, 1995)되며, 참여연령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고(Diamantis, 1998)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3).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4일(평일 32.8%, 주말 52.4%)까지 10일간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48부(내국인 318부, 외국인 230부)의 유효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주공항을 비롯한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이며, 설문조사를 위해 일련의 교육을 받은 제주도내 대학생 10명이 설문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설문대상은 성별과 연령을 최대한 고려하여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조사를 위해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관광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조사에 이용된 항목마다 4점, 5점, 7점 9점 등 다소 다르게 라이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조사된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조사항목마다 다른 범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조작적 정의

대안관광객 혹은 대중관광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대개 대상지의 특성이나 참여관광활동유형, 관광객 수, 관광

표 1.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조작적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대안관광객	제주도를 여행 중인 응답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관광객유형으로 모험관광객, 문화관광객, 교육적 관광객, 야생동물 관광객, 자연관광객, 그리고 생태관광객을 선택한 관광객
대중관광객	제주도를 여행 중인 응답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관광객유형으로 일반관광객 및 리조트관광객을 선택한 관광객

표 2. 관광객유형별 조작적 정의.

관광객유형	조작적 정의
문화관광객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데 관심 있는 여행객
모험관광객	스쿠버다이빙이나 기타 모험적인 활동에 관심 있는 여행객
리조트관광객	리조트에 머물면서 맛있는 식사와 휴식을 즐기는 데 관심 있는 여행객
자연관광객	주로 자연지역에서 시간 보내는 데 관심 있는 여행객
생태관광객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여행상품과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여행객
교육적 관광객	무엇이든 배우는 교육적인 활동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
야생동물관광객	특히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데 관심 있는 여행객
일반관광객	잘 개발되어 있고 잘 알려진 곳을 주로 여행하는 여행객

출처: Kang and Moscardo(2006)

동기 등 다분히 학문적 접근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관광객은 스스로를 대중관광객이라 혹은 생태관광객이라 구분하지 않고 대중관광 혹은 생태관광에 참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을 동기나 방문 대상지 등 연구자의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을 구분한 유형에 따라 관광객집단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먼저 대안관광객의 유형은 문화관광객, 모험관광객, 자연관광객, 생태관광객, 교육적 관광객, 야생동물관광객 등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대중관광객은 일반관광객과 리조트관광객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안관광객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객들이 문화와 생태 또는 모험과 교육적 요소를 강조하므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관광객 유형 선택은 제주도를 여행 중인 현재 응답자 자신의 관광특성을 고려했을 때로 제한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 응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유도하였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관광객유형이 제주도를 여행 중인 응답자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라이커트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관광객 유형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8개 관광객 유형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한 관광객 유형 및 각 유형별 조작적 정의는 Kang과 Moscardo (2006)를 따랐다.

연구결과

1. 표본의 사회경제적여행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사회경제적여행 특성은 다음

표 3. 표본의 사회경제적·여행 특성.

구분	내용
성 별	남 309(58.7%), 여 217(41.3%)
연 령	20대이하 225(42.0%), 30대(28.7%), 40대(17.9%), 50대이상(11.4%)
학 령	국졸이하 6(1.1%), 중졸 16(3.0%), 고졸 161(30.1%), 대졸 278(52.1%), 대학원이상 73(13.7%)
소 득	100만원미만 52(9.8%), 100-200만원 98(18.5%), 200-300만원 171(32.2%), 300-400만원 96(18.1%), 400-500만원 62(11.7%), 500만원이상 52(9.8%)
직 업	회사원 146(27.1%), 전문·기술직 107(19.9%), 사업·자영업 80(14.9%), 학생 71(13.2%), 주부 41(7.6%), 공무원 31(5.8%), 기타 62(11.5%)
거 주 지	서울·인천·경기도 152(27.8%), 부산·대구·울산·경상도 67(12.2%), 광주·전라도 45(8.2%), 대전·충청도 46(8.4%), 강원도 18(3.3%), 일본 96(17.6%), 중국 70(12.8%), 미국·캐나다 24(4.4%), 호주·뉴질랜드 6(1.1%), 유럽 17(3.1%), 서남아시아 4(0.7%), 중남미 1(0.2%)
동반유형	친구·동료 282(53.3%), 가족·친척 120(22.7%), 애인 73(13.8%), 혼자 54(10.2%)
체류기간	당일 21(3.9%), 2일 83(15.3%), 3일 171(31.6%), 4일 118(21.8%), 5일 63(11.6%), 7일 38(7.0%), 8일~60일 34(6.3%)

의 표 3과 같다.

2. 사회경제적 여행특성 차이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 스스로가 평가한 관광객유형은 표 4와 같다.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으로 이분하였을 때는 그 비율이 각각 39.1%와 60.9%로 대중관광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안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관광객유형은 “자연관광객”이며,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객”, 그리고 “모험관광객”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만의 독특한 섬문화와 한라산국립공원 등 천연의 난대식물자원을 보유한 제주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모험관광객이나 교육적 관광객 등 보다 전문화된 관광객 유형은 그 비율이 높진 않으나 제주도 관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다.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여행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과 동반유형, 여행사프로그램 이용 여부, 생태관광 및 유사여행프로그램 참여경험, 참여활동, 제주관광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에서 표 7까지).

먼저, 대안관광객은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연령층의 참여가 36%를 차지할 만큼 많았으며, “혼자” 및 “친구/동료”

표 4. 제주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객 유형 비율.

관광객 유형	빈도	퍼센트	
대안관광객 (39.1%)	문화관광객	50	9.58
	모험관광객	36	6.90
	자연관광객	87	16.67
	생태관광객	9	1.72
	교육적 관광객	20	3.83
	야생동물관광객	2	0.38
대중관광객 (60.9%)	일반관광객	217	41.57
	리조트관광객	101	19.35
합계	522	100.00	

표 5. 사회경제적 · 여행 특성 차이.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χ^2 값	P
		표본수	퍼센트	표본수	퍼센트		
연령층	20대이하	79	39.5	136	43.0	8.130	0.043
	30대	49	24.5	98	31.0		
	40대	40	20.0	54	17.1		
	50대이상	32	16.0	28	8.9		
동반유형	혼자	27	13.7	22	7.1	23.486	0.000
	친구/동료	121	61.4	148	47.9		
	애인	16	8.1	57	18.4		
	가족/친척	33	16.8	82	26.5		
여행진행주체	여행사 이용	72	35.6	173	55.8	19.926	0.000
	전일정 개별여행	130	64.4	137	44.2		
(유사)생태관광참여	참여경험 있음	20	10.0	11	3.5	9.240	0.004
	참여경험 없음	181	90.0	307	96.5		

표 6. 참여한 제주 관광활동 차이.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χ^2 값	P
	표본수	참여율(%)	표본수	참여율(%)		
바다, 인근섬지역 당일여행	97	47.5	116	36.5	6.306	0.012
낚시, 기타 해상스포츠	66	32.4	71	22.3	6.453	0.014
1시간이상 숲산책 (한라산 등산 포함)	82	40.2	84	26.4	10.883	0.001
일반쇼핑	85	41.7	164	51.6	4.888	0.031

주: 참여한 경우만 표본수와 퍼센트를 제시하였음. 비참여는 참여한 경우의 전체 표본수 548에서 참여한 경우의 표본수를 빼면 됨.

표 7. 제주관광 추천의도 및 재방문의도 차이.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T값	P
	표본수	평균값	표본수	평균값		
추천의도	204	3.23	317	2.97	3.808	0.000
재방문의도	199	3.16	313	2.94	0.527	0.001

주: 의도는 “아니오”(1점), “모르겠음”(2점), “가능하면 권유(방문)”(3점), “꼭 권유(방문)” 등의 4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와 여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친척” 혹은 “애인”의 동반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64.4%가 개별적으로 전 일정을 계획하여 여행하는 능동적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관광이나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물관, 갤러리, 영화 및 인형 등 특정 소재를 주제로 한 장소 방문”, “유홍”, “식물원이나 폭포, 공원 등 자연지역 방문”, “민속공연이나 민속촌 등의 방문” 등 총 12개 활동을 제시하고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활동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총 4개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안관광객은 “일반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한 반면, 대중관광객은 과반수가 “일반쇼핑”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안관광객이 보다 자연 친화적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안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는 만족도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만족도 질문 자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안관광객에 의한 구전효과와 재방문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친환경적 여행에 대한 태도 차이

제주도 관광객의 여행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미희(1999)가 개발한 “여행행동규범 태도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여행태도척도를 이용하여 각 응답자의 태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대안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환경적으로 건전한 여행에 대한 태도 차이.

	표본수	여행태도 점수	T값	P
대안관광객	204	71.95	2.555	0.011
대중관광객	311	68.28		

강미희(1999)와 강미희 등(2003)이 조사한 대중관광객 및 자연관광객 그리고 생태관광객의 여행태도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태도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상기 연구들이 여러 대안적 관광형태 중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관광이라 평가받는 생태관광 참여자라는 특별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점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으로 양분하였을 때 대안관광객이 자연과 문화를 더 존중하고 또 배우면서 여행하고자 하는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태도항목별로 차이를 살펴보니 통계적 유의성에 상관없이 각 항목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남”과 “여행지 자연보호규칙 준수” 등의 두 항목을 제외한 모든 태도항목에서 대안관광객의 태도 점수가 높았다(표 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보면,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 “여행지 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통해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 “여행 중에 환경교육 및 환경해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환경적으로 민감해 훼손되기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함” 등이다. 이 네 항목 모두에서 대안관광객이 더 높은 태도점수를 받았는데, 즉 대안관광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연과 문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역사회와

표 10. 연도별 관광객 집단의 여행태도점수 비교.

	2002년		2005년	
	생태관광객	대중관광객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여행태도점수	78.1점	72.1점	71.9	68.3

주: 2002년 자료는 강미희 등(2002)의 연구에서 인용함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표본의 여행태도점수를 과거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강미희 등(2002)이 실시한 대중관광객과 생태관광객의 여행태도점수 비교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다시 비교하였을 때, 제주 관광객의 여행태도점수가 2002년 대중관광객의 여행태도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지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강미희 등(2002)의 연구에서 이용된 대중관광객의 표본은 설악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방문한 사람으로 대상지 자체가 보다 자연중심적인 곳이므로 다양한 관광요소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과는 차별되며, 또 대안관광객 중에서도 생태관광객이라는 보다 자연지향적이며 특화된 형태의 표본을 비교대상으로 보았으므로 본 연구와 절대적인 태도값의 차이 비교는 힘들 것이다.

3. 관광객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

응답자 자신이 어떤 관광객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관광객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5개 유형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차이가 나타났다(표 11). 대안관광객은 자신들이 ‘문화관광객’, ‘자연관광객’ 그리고 ‘교육적 관광객’이라고 더 인식하는 반면, 대중관광객은 ‘리조트 관광객’ 및 ‘일반관광객’이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9. 여행태도 항목별 태도값 차이.

항목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t값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남	3.91	3.94	-0.378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남	3.72	3.56	1.769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설 이용	3.99	3.92	0.815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	3.89	3.68	2.530*
여행지 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통해 생활방식과 문화 이해기회 가짐	3.89	3.66	2.827**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여행	3.86	3.77	1.014
여행지 사회적 규범/규칙 준수	3.99	3.94	0.552
여행지 자연보호규칙 준수	4.12	4.19	-0.978
여행지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	4.00	3.85	4.851
여행 중에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3.64	3.31	3.712***
자연훼손이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쁨	3.95	3.74	2.487*
여행지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 이용	3.82	3.68	1.812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임	3.83	3.61	2.507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여행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임	3.69	3.49	2.194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1. 관광객 자신의 제주관광유형 평가 차이.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T값	p
	표본수	평균값	표본수	평균값		
문화관광객	191	2.40	291	2.12	2.997	0.003
리조트관광객	186	2.38	299	2.75	-3.699	0.000
자연관광객	197	3.08	293	2.78	3.434	0.001
교육적 관광객	186	2.15	284	1.87	3.043	0.003
일반관광객	194	2.69	303	3.31	-7.806	0.000

표 12. 생태관광 인지도 연도별 비교.

단위: 명(%)

인지도	1998	2002	2005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처음들었음	702(60.5)	502(50.2)	68(33.8)	142(45.4)
들어봤으나 뜻은 모름	302(26.1)	301(30.1)	77(38.3)	104(33.2)
들어봤으며 조금 안다	135(11.6)	179(17.9)	40(19.9)	50(16.0)
매우 잘안다	21(1.8)	18(1.8)	16(8.0)	17(5.4)
합계	1160(100)	1000(100)	201(100)	313(100)

주: 1998년 및 2002년 자료는 강미희 등(2002)에서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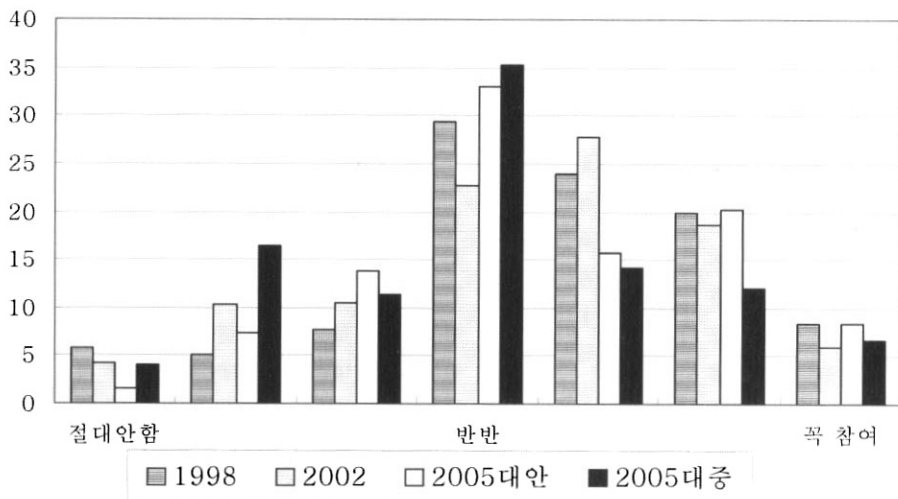


그림 1. 생태관광 참여의도 연도별 비교.

즉, 대안관광객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여행형태를 보다 자연과 문화 지향적이며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한 개별 여행태도항목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4. 생태관광 관련 인식

대안관광 중에서도 보다 특화된 형태의 생태관광과 관련된 인지도와 향후 참여의도 또 제주시험민 인지도와 향후 생태관광을 위한 방문의도 등을 조사하고 대안 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응답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도와 향후 참여의도를 분석한 결과, 대안관광객이 생태관광객이 인지도와 참여의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생태관광인지도와 향후 2년내 생태관

광 참여의도에서 대안관광객의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대안관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위해 관련된 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실제 여행에서 이를 참고하겠다는 의도 역시 대안관광객의 경우가 더 높았다.

한편, 과거 국내에서 조사한 생태관광 인지도와 장래 참여의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 모두 생태관광 인지도는 높아졌으며, 참여의도는 대안관광객의 경우 2002년보다는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1998년보다 낮으며, 대중관광객의 참여의도는 과거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자료가 우리나라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또 전국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 조사인데 반해 이번 연구는 제주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표 13. 생태관광 관련 인지도 차이.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T값	p
	표본수	평균값	표본수	평균값		
생태관광인지도 ¹	201	2.02	313	1.81	2.503	0.013
향후 2년내 생태관광참여의도 ²	203	4.48	317	4.02	3.466	0.001
지속가능한 관광 인증제도 시행시 참고의도 ³	203	8.32	315	7.83	2.499	0.013
생태관광경험을 위한 제주시험립 방문의도 ⁴	202	2.82	309	2.58	3.419	0.001

¹: “전혀 모른다”(1점)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4점)까지의 4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²: “절대 안함”(1점)에서 “꼭 참여”(7점)까지의 7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³: “절대 안함”(1점)에서 “꼭 참고”(11점)까지의 11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⁴: “전혀 없음”(1점)에서 “꼭 방문”(4점)까지의 4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표 14. 제주난대시험립 인지도 차이.

인지도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χ^2 값	p
예	29명(14.4%)	26(8.5%)	4.413	0.041
아니오	172명(85.6%)	280(91.5%)		

대략의 추세를 아는 데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 개발계획을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산림청 산하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립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59명(11.22%)이었으며, 대안관광객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이곳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생태관광경험을 위하여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를 질문하였을 경우에도 대안관광객의 방문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 론

기존의 대중관광이 야기한 많은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현저히 줄이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통해 관광지 지역사회와 관광객 모두가 긍정적인 편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안관광이다.

제주도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과 문화 기반 관광지로서 대안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이 어떤 특성을 가진 관광객이며 관광객유형에 따라 차별적 특성을 갖는지를 대안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이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중관광객이 비율적으로 더 많았으나, 자연과 문화 지향적인 대안관광객 역시 상당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전한 여행태도를 갖고 있어 향후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관광객의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개발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며 여행 중에 환경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의 대안관광에 대한 잠재수요가 충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관광 프로그램과 방문대상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방문자의 행동특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광특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여행 체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제주 난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중인 생태관광개발계획은 현존하는 대안관광객의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앞으로 양질의 대안관광경험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 역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지속가능관광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틀에서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제주시험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지는 그들의 수요자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안관광객의 특성과 시장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헌

1. 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척도구축과 관광객유형별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강미희, 김남조, 최승담. 2003.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 규명: 여행 동기 및 태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7(2): 157-175.
3. 신동일. 2001. 제주지역 생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 5호. 제주발전연구원.
4. Bilsen, F. 1987. Integrated Tourism in Senegal: an alternativ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3(1): 19-23.
5. Britton, S.G. and Clarke, W.C., eds. 1987. Ambiguous alternative: tourism in small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Suva.

6. Butler, R. 1992. Alternative Tourism: The Thin Edge of the Wedge. In Smith, V.L. and Eadington, W.R., eds.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USA.
7. Cohen, E. 1987. Alternative tourism-a critiqu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2(2): 13-18.
8. Deroi, L.A. 1988. Alternative or community-based tourism. In L. D'Amore and Jafari, J., eds. *Tourism-a vital force for peace*. L. D'Amore and Associates. Montreal.
9. Diamantis, D. 1998. Consumer behavior and ecotourism produ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2): 515-517.
10. Eadington, W.R. and Smith, V.L. 1992. Introduction: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Forms of Tourism. In Smith, V.L. and Eadington, W.R., eds.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1. Eagles, P.F.J. and Cascagnette, J.W. 1995. Canadian ecotourist: Who are they?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0(1): 22-28.
12. Jenner, P. and Smith, C. 1992.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2453.
13. Kang, Mihee and Moscardo, Gianna. 2006. Exploring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Responsible Tourist Behaviour: A Comparison of Korean, British and Australian Tourist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in press.
14. Lanfant, Marie-Francoise and Graburn, N.H.H. 1992. International Tourism Reconsidered: The Principle of the Alternative. In Smith, V.L. and Eadington, W.R., eds.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USA.
15. Middleton, Victor T.C. and Hawkins, R. 1998. *Sustainable Tourism: A Marketing Perspective*. Butterworth-Heinemann. Oxford.
16. Pearce, D.G. 1992. Alternative Tourism: Concepts, Classifications, and Questions. In Smith, V.L. and Eadington, W.R., eds. *Tourism Alternatives: Potentials and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7. Ross, G.F. 1992. Resident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tourism on an Australian c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Winter: 13-17.
18. Theophile, K. 1995. The forest as a business: Is ecotourism the answer? *Journal of Forestry*, March: 25-27.
19. UNEP 2000. Ecotourism: Facts and Figures. *Industry and Environment*, 24(3-4): 5-9.
20. Wall, G. 1994. Ecotourism: Old wine in new bottles? *Trends*, 31(2): 4-9.
21. WTO 2001. Millenium Tourism Boom in 2000. online document.

(2006년 9월 21일 접수; 2006년 11월 6일 채택)